

---

# 차베스 이후 라틴아메리카 신좌파의 미래: 사회정의와 자원 착취 경제 모델

김은중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HK교수

---

## 1. 차베스의 유산과 과제

지난 3월 5일 라틴아메리카 좌파 정권을 이끌었던 베네수엘라 우고 차베스(Hugo Rafael Chávez) 대통령이 사망했다. 생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사후에도 차베스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으로 엇갈린다. 이 때문에 공과를 떠나서 차베스는 베네수엘라와 라틴아메리카, 더 나아가 그를 바라보는 세계의 시선을 극단적 친(親)차베스와 극단적 반(反)차베스의 진영으로 갈라놓은 분열주의자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차베스에 대한 평가는 진영의 논리에 지배된다. 지배자와 피지배자, 엘리트와 민중, 부자와 가난한 자, 제국주의자와 민족주의자 등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구성원이 속한 진영의 논리에 따라 차베스는 독재자, 군복 입은 포퓰리스트, 선동가, 사이코패스가 되기도 하고 볼리바르(Simón Bolívar)와 체 게바라(Che Guevara)를 잇는 베네수엘라와 라틴아메리카의 해방자,

가난한 자들의 지도자가 되기도 한다.<sup>1)</sup>

차베스를 둘러싼 극단적 평가의 원인을 진영의 논리에 둔다고 하더라도 반차베스 진영에 속한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것은 그가 민주주의자라는 사실이다. 차베스는 집권 기간 치른 ‘흠잡을 데 없는 민주적’ 선거로 평가받은 15번의 선거에서 14번을 승리했다. 또 한 가지는 단호한 성격과 명확한 정치적 비전, 그리고 엄청난 활력과 지속성을 가지고 이러한 정치적 비전을 실천한 카리스마형 지도자라는 점이다. 월러스틴이 지적한 것처럼 카리스마형 지도자의 특징은 절대적인 지지를 이끌어내는 만큼 반대파를 강력하게 결집시킨다는 점이다. 반차베스 진영은 카리스마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차베스의 지도력을 ‘선출된 전제정치’(elected autocracy)나 ‘못돼먹은 민주주의’(rogue democracy) 같은 정치학 사전에도 나오지 않는 형용모순적인 단어로 폄하해왔다. 이 정도면 인류 역사상 민주적으로 선출된 어떤 정치 지도자보다도 악마화된 사람이 차베스였다고 말할 수 있다(Weisbrot 2013).

반차베스 진영은 차베스가 보여준 민주적 카리스마가 차베스와 차베스를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 특별한 연대감을 형성시켰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카리스마와 민주주의의 결합은 반차베스 진영이 비판하듯이 단순히 폄하된 의미의 포퓰리즘이 아니라 대의민주주의적 정당성을 사회적 소속감과 결합시킬 뿐만 아니라 정치적 대표성을 뛰어넘어 공동된 목표 의식을 갖게 했다. 다시 말해, 자신들과는 동떨어진 억압적 권력에 의해 사회적으로 배제되었던 민중은 차베스의 민주적 카리스마를 통해 차베스가 자신들의 대표자라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다. 반차베스 진영이 권위주의나 포퓰리즘이라는 구호를 통해 유권

1) 차베스의 장례식에는 45개국에서 조문사절단이 참석했다. 라틴아메리카 33개국에서는 국가수반이 참석했고, 우파 정권인 칠레를 포함한 라틴아메리카 14개 나라에서 차베스의 장례식 날을 에도의 날로 선포했다.

자를 설득하지 못한 것은 차베스의 민주적 카리스마가 만들어내는 정치적·사회적 화학 작용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어떻게 이런 정치적·사회적 화학 작용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민중의 교육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차베스의 카리스마가 민주주의를 통해 다른 조건에서 달성되기 어려운 민중의 교육 수준을 끌어올렸기 때문이다(Santos 2013). 이러한 사실은 보고서나 통계 자료에서도 드러난다. 차베스 정부는 적어도 예산의 43%를 사회 정책에 배정했는데, 대부분이 교육, 보건, 주거, 인프라 구축에 사용되었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는 지난 10년간 22개의 공립대학이 세워졌고, 교사 숫자는 6만 5,000명에서 35만 명으로 증가했다(Pepe Escobar 2012). 그 결과 2005년 유네스코는 베네수엘라를 “문맹이 사라진 국가”로 선언했다(Ferrari 2013).<sup>2)</sup> 여기에 부의 재분배를 통한 사회정의가 실현되면 카리스마와 민주주의의 결합이 일으키는 정치적·사회적 화학 작용은 더 강력해진다.

카리스마가 문제가 되는 것은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의 죽음이 남겨놓는 불확실성의 공간이다. 불확실성의 공간을 제거하기 위해서 민주주의는 두 가지 요소를 필요로 하는데, 하나는 제도화이며 다른 하나는 민중의 참여다(Santos 2013, 1; Wallerstein 2013, 1). 카리스마와 민주주의의 결합이 만들어내는 정치적·사회적 화학 작용이 간단치 않은 것처럼 제도성과 민중의 참여라는 두 가지 요소가 만

2) 차베스 정부는 ‘사업’이라고 부르는 다양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실행했는데 그중에서 교육에 해당하는 사업은 로빈슨 사업(Misión Robinson, 문맹 퇴치), 로빈슨 사업2(글을 깨친 사람들을 위한 초등 교육), 리바스 사업(Misión Rivas, 중등 교육), 수크레 사업(Misión Sucre, 중하계층과 빈곤층을 위한 대학 교육)이다. 니카라과 시인 에르네스토 카르데날은 교육 사업이 가져온 효과가 단지 문맹 퇴치 수준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화를 소개한다. “칠레의 대시인 파블로 네루다가 베네수엘라의 발렌시아에 시 강연을 하러 갔을 때, 청중이 고작 30명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내가 (5대륙의 시인들이 모인) 세계 시 페스티벌에 참석하기 위해 그곳에 갔을 때 강당은 꽉 찼고 강당 밖에도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입장하지 못한 채 돌아가지도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똑같은 강연을 다시 한 번 해야만 했다. 카라카스에서는 테레사 카레뇨 극장 2,500석이 꽉 찼고, 외부에는 대형 스크린을 설치해야만 했다. 몇몇 시인이 이런 열기는 베네수엘라의 전통이 아니라 혁명의 결과라고 말했다.”(Cardenal 2004, 1)



베네수엘라의 문맹 퇴치 사업 (사진 출처: [www.psu.org.ve](http://www.psu.org.ve))

들어내는 화학 작용의 결과 역시 예단하기 쉽지 않다. 차베스 집권 이후 강렬한 민주적 경험이 보여준 것처럼 차베스의 '볼리바르 혁명'은 국내외적으로 적대 전선을 형성했다. 그 과정에서 베네수엘라는 제도적인 면에서는 충분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단언하기 어려운 반면 민중의 참여는 매우 활발했다. 이런 맥락에서 베네수엘라의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차베스가 남겨놓은 유산과 과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은 베네수엘라의 미래만이 아니라 라틴아메리카 대륙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까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 1) 차베스의 유산(功)

차베스의 유산은 무엇보다도 부의 사회적 재분배다. 라틴아메리카 좌파 정권들처럼 차베스도 자원 붐(특히 석유)을 등에 업고 전례 없는 사회 정책을 시행했다. 정부 예산의 43%를 사회 정책에 투입한 덕분에 71%에 달하던 빈곤층(1996년)이 21%(2010년)로 줄어들었고, 같은 기간 극빈층은 40%에서 7.3%로 줄어들었다. 지니계수는 남미 전체에서 최고로 호전되었다. 이런 통계는 ‘불평등하고 가난한 민주주의’ 국가이자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베네수엘라’(Venezuela saudita)<sup>3)</sup>가 ‘볼리마르의 꿈을 실현한 베네수엘라’(Venezuela bolivariana)로 변화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라틴아메리카가 지난 30~40년 동안 다른 어떤 지역보다 신자유주의가 가장 먼저, 가장 강도 높게 적용되었으며, 가장 먼저 도전받고 있는 지역이라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부의 재분배이나 경제민주화가 차베스 정권의 첫 번째 과제가 된 것은 당연하다. 반차베스 진영에서는 차베스의 사회 복지 정책이 고유가에 의존하는 사상누각이라고 공격하지만 차베스 이전의 석유 이윤이 고스란히 ‘기생적 도둑정치’(parasitic kleptocracy)의 배만 불렀다는 역사적 사실을 잊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모범이라고 칭찬받았던 베네수엘라 제4공화국(1958~1998)이 남겨놓은 것은 풍부한 석유를 가진 부패하고 낭비벽에 찌든 분열된 국가였을 뿐이다(Cores 2006, 1).

두 번째는 지역 통합을 들 수 있다. 차베스가 대선에서 승리한 1998년 4월 18~19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제2차 미주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주된 의제로 등장한 미주자유무역지대(ALCA) 결성은 늦어도 2005년까지 마무

3) 1973년 중동전쟁이 발발하자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을 응징하기 위해 석유 수출을 금지하였고, 이로써 베네수엘라에 오일달러가 대거 유입되었을 때 붙여진 별명이다.

리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차베스의 등장 이후 라틴아메리카 대륙에서는 심각한 사회적 변화가 발생했고, 그 결과 소위 ‘반미 좌파 도미노’ 현상이 일어났다. 차베스의 뒤를 이어 브라질의 룰라(2002년), 아르헨티나의 키르츠네르(2003년), 우루과이의 바스케스(2005년), 칠레의 바첼레트(2006년), 볼리비아의 에보 모랄레스(2006년), 에콰도르의 코레아(2006년), 파라과이의 루고(2008년)가 연속적으로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진보 좌파 벨트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룰라와 키르츠네르의 집권으로 반미 동맹을 형성한 차베스는 제3차 미주정상회의(2001년 4월, 캐나다 퀘벡)에서 공개적으로 미주자유무역지대 협정 체결을 반대했다. 그리고 2년 뒤인 2005년 11월 아르헨티나의 마르 델 플라타에서 개최된 제5차 미주정상회의에서 미국 주도의 미주자유무역지대 합의는 최종적으로 결렬되었다.

세 번째는 반제국주의 노선이다. 세계 체제의 관점에서 보면 차베스가 앞장섰던 라틴아메리카 지역통합은 반제국주의를 위한 대륙적 통합이다. 따라서 라틴아메리카 지역통합은 정치적·경제적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미주자유무역지대 설립 협정이 최종적으로 결렬되기 1년 전인 2004년에 베네수엘라와 쿠바 간에 시작된 ‘라틴아메리카를 위한 볼리바르 대안’(ALBA)은 자유무역(free trade) 대신에 공정무역(fair trade)을 지향한다. 2006년 볼리비아가 회원국이 되면서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의 제안으로 정식 명칭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 민중을 위한 볼리바르 대안 민중무역협정’(ALBA-TCP)으로 바뀌었다. 더 나아가 차베스는 ‘ALBA-TCP 정신에 입각한 사회운동협의체’ 결성을 사회운동단체에 제안했다. 지역 통합이 경제적 이해관계에만 국한된 것도 아니고 국가 권력의 역학 관계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시사하는 중요한 제안이다. 또한 남미국가연합(UNASUR)과 미국과 캐나다를 배제한 ‘라틴아메리카 카리브 국가공동체’(CELAC)의 기본적 노선도, 회원국 간의 이견과 갈등이 존재하지만, ALBA-TCP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되어야 한다(Lander 2010, 162~165; Chavez 2013,

3). 이런 맥락에서 라틴아메리카의 지역 통합과 반제국주의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다.

네 번째는 '21세기 사회주의'를 들 수 있다. 차베스는 2005년 1월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에서 진행된 세계사회포럼에 참여한 대규모 군중 앞에서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전 세계적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역설했다. 그렇다고 소련의 경우처럼 국가자본주의에 의지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차베스는 '21세기 사회주의'를 '민중이 주인이 되어 참여하는 민주주의'로 규정했다. 다시 말해 새로운 사회주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끝없이 확장하는 것'을 의미한다(Santos 2013, 3).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차베스는 부의 사회적 재분배를 위해서 석유를 국유화했다. 석유의 국유화는 외국 투자자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이들의 이익을 옹호하는 정치 세력과 언론들은 차베스를 악마화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차베스의 석유 국유화 정책은 흔히 '네덜란드 병'이라고 불리는 풍요가 가져온 저주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었다.<sup>4)</sup>

## 2) 차베스 개혁이 남겨놓은 과제(過)

차베스의 카리스마와 민주주의의 결합이 가져온 정치적·사회적 회화 작용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고 하더라도, 혁명은 한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집단적 과

4) 차베스 스스로 인정한 것처럼 '21세기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넘어서 나아가야 할 명제이자 실천해야 할 프로젝트다. 즉 그가 제안하고 또 실천하려고 노력한 새로운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부분적으로 해체하는 것일 뿐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세계 체제의 관점에서 원자재인 석유는 자본주의 체제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국유화 정책은 해외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그 때문에 투자와 상품 공급의 위축을 가져왔고 인플레이션을 부추겼으며 석유 의존도는 더욱 높아졌다. 그 결과 계급투쟁도 더욱 양극화되었다. 따라서 베네수엘라의 여러 가지 사회문제(예를 들어 사회적 범죄)는 차베스의 정책에 대한 국내외적 저항이 가져온 부작용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정이다(Chavez 2013, 1). 차베스의 혁명의 토대는 소외되고 배제되었던 민중계급의 민주적 지지와 시민 권력과 군부 사이의 정치적 연합이었다. 라틴아메리카에서 이러한 정치적 연합은 늘 문제가 되었고, 이러한 연합은 주로 보수적인 성향의 군부독재에서 일어났다. 그 자신 군인 출신이었던 차베스도 정권의 안정을 위해서 진보적 노선의 시민 권력과 군부의 연합을 추진했다. 이러한 시도는 군부 내 부패의 원인이 되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차베스 사후 볼리마르 혁명에 등을 돌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Santos 2013, 3~4). 이러한 우려는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차베스의 카리스마가 남겨놓은 불확실성의 공간을 제도화하는 작업이 미완임을 시사한다.<sup>5)</sup> 제도화 작업에서 언급해야 할 두 가지는 주민평의회와 협동조합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 국가의 건설과 베네수엘라 사회주의통합당(PSUV)이다. 주민평의회와 협동조합의 제도화는 크게는 국가와, 작게는 행정단위와 병행하는 영토적 주권을 가지고 일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자율과 자치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대의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예를 들어 참여 예산 제도)를 결합하는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식민지 과거와 독립 이후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는 ‘내적 식민주의’(colonialismo interno)에서 과생된 사회적 권력 관계를 총체적으로 재편하는 것을 의미한다. 차베스뿐만 아니라 라틴아메리카 좌파 정권이 ‘제2건국’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러한 시도는 앞에서 언급한 ‘민중이 주인이 되어 참여하는 민주주의’를 구

5) 제도화라는 측면에서 한 가지 언급할 것은 1998년 대통령에 당선된 차베스가 추진했던 ‘베네수엘라 볼리마르 제헌헌법’이다. 이 제헌헌법은 의회를 해산하고 국민투표를 거친 헌법이며, 개정을 위해서는 다시 국민투표를 거쳐야만 한다. 차베스는 헌법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법률적·정치적 변화를 시도했고, 민중과 군부 이외에 헌법을 제3의 지지 기반으로 삼았다. 제헌헌법은 여러 가지 관행으로 인쇄되어 무료로 배포되었다. 헌법을 읽지 않은 베네수엘라 국민이 없다고 말할 정도이며 거리와 공원에서 헌법 전문가를 만나는 일도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말한다. 2002년 군사 쿠데타 당시 반차베스 진영이 제일 먼저 한 일은 헌법을 말소하는 것이었고, 차베스 복권을 위해 거리로 나온 시위대의 손에 들려 있던 것도 헌법이였다(Cardenal 2004, 2).



축하하려는 것이지만, 정치 역학적 관점에서 볼 때 여전히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베네수엘라 사회주의통합당 또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힌 다양한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차베스 사후 결속력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부패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당 내부의 차이가 인정되지 않은 채 서로 차베스의 진정한 후계자임을 주장할 경우 당은 분열되고 정치적 영향력은 급격히 약화될 것이다.

차베스 사후 그의 카리스마가 남겨놓은 불확실성의 공간을 민주적 과정을 통해 어떻게 제도화하느냐가 볼리바르 혁명과 베네수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갈림길이 될 것이라는 점은 확실하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어쩌면 이보다 더 중요한 과제가 자원 착취 경제다. 볼리바르 혁명은 석유를 비롯한 천연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더욱 심화시켰다. 천연자원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경제의 다변화를 가로막고 심각한 환경 파괴를 저지르며 원주민과 농민을 또다시 억압하고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베네수엘라에만 국한되지 않고 진보 노선을 지향하는 라틴아메리카 신좌파 정권 모두에 공통적으로 관련되어 있다(Wallerstein 2013, 3; Santos 2013, 4; Gudynas 2011; Gudynas 2010).

## 2. 라틴아메리카 신좌파와 자원 착취 경제

지금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이중의 위기가 진행 중이다. 하나는 지난 30~40년 동안 대륙 전체를 휩쓸었던 신자유주의 발전 모델의 위기이고, 다른 하나는 아메리카 정복으로 시작된 근대성 프로젝트의 헤게모니 위기다. 차베스를 선두로 라틴아메리카 신좌파가 등장하게 된 맥락에는 이러한 이중적 위기가 자리 잡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라틴아메리카 신좌파 정권이 목표로 하는 사회경제적·정

치적·문화적 변화는 상호보완적이면서 동시에 모순적인 두 개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첫째는 반신자유주의 발전 모델을 토대로 혼합 경제, 연대 경제, 포스트자본주의 경제를 지향하는 대안적 근대화다. 더 나아가 대안적 근대화는 신자유주의의 헤게모니를 넘어서서 유럽 중심적 근대성에 대한 대안도 모색한다. 둘째는 탈식민적(decolonial) 이행이다. 탈식민적 이행은 사회 모델의 이행을 통해 포스트자본주의 사회를 지향한다. 탈식민적 이행의 밑바탕에는 공동체적·원주민적·혼합적 세계관이 자리 잡고 있다. 탈식민적 이행의 최종적 목표는 자유주의와 발전(개념)을 변화시키는 것이다(Arturo Escobar 2012).

21세기에 들어와 대안적 근대화와 탈식민적 이행은 국가적 차원과 사회운동의 차원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 지배적인 방향성은 대안적 근대화이며, 에콰도르와 볼리비아처럼 예외적인 경우에만 탈식민적 이행 — 수막 카우사이와 수마 카마냐<sup>6)</sup> — 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다시 말해, 진보를 지향하는 라틴아메리카 신좌파 정권은 ‘대안적’(alternativo)이라는 단서를 달고 있지만 대부분 근대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탈식민적 이행은 사회운동과 담론의 차원에서 거론되고 있을 뿐이다. 이런 맥락에서 라틴아메리카 신좌파는 ‘사회적·경제적 변화’와 ‘문화적·정신적 이행’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고 말할 수 있다(Arturo Escobar 2012; Ramírez Gallegos 2012). 그러나 사실상 문화적 이행의 개념은 에너지 고갈과 기후 변화, 식량 부족과 빈곤 문제가 중층적이고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전 지구적 공통 주제다.

6) 수막 카우사이(Sumak Kawsay)는 에콰도르 원주민의 세계관을 표현한 케추아어이며, 수마 카마냐(Suma Qamaña)는 볼리비아 원주민의 세계관을 표현한 아이마라어로 문자적 의미는 차이가 없다. 둘 모두 ‘참다운 삶’ 또는 ‘참살이’(buen vivir)로 번역할 수 있다.

## 1) 발전주의 담론과 자원 착취 경제

광산 개발과 석유 채굴을 핵심으로 하는 자원 착취 경제는 라틴아메리카 역사와 떼어놓을 수 없다. 천연자원은 라틴아메리카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국가 경제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왔다. 그러나 자원 착취 경제는 경제적·사회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환경에도 심각한 충격을 미쳤다. 이 때문에 자원 착취 경제를 둘러싼 논쟁이 끊임없이 진행되어왔다. 라틴아메리카 좌파 진영은 고전적 발전 스타일을 비판했으며 자원 착취 경제 역시 비판했다. 그들은 자원 착취 경제의 수출 의존성, 영지 경제,<sup>7)</sup> 노동 조건, 외국 기업의 지나친 영향력, 국가 기능의 축소, 낮은 세율 등을 비판의 근거로 들었다. 이런 비판을 근거로 신자유주의 개혁을 되돌리고, 중속을 끊어내야 하며, 생산을 다변화하고, 천연자원을 산업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러한 좌파 진영의 요구는 다양한 사회 집단과 연대를 가능하게 만들었고, 1990년대 이후 정치 지형을 크게 변화시키는 계기를 제공했다. 선거에서 연속적으로 승리한 라틴아메리카 신좌파 정권은, '좌파'라는 공통된 규범 개념에도 불구하고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도 다양한 차이를 가진다. 좌우 연립 정권을 유지하는 경우(대표적으로 브라질과 우루과이)도 있고, 조직된 공식적 정당의 도움을 받지 않는 경우(대표적으로 에콰도르)도 있다. 또는 볼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처럼 급진 좌파로 분류되기도 하고 브라질, 칠레, 우루과이처럼 유럽의 시민주의와 유사한 경우로 분류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라틴아메리카 신좌파 정권은 국가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지난 30년 동안 지배적이었던 시장만능주의를 비판하고 빈곤 퇴치를 정책의 제1순위로 삼는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차베스의 집권 이후 남미 정치

7) 주변 지역과 비교하여 임금, 고용, 투자 등이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한 특정 지역의 경제를 일컫는다.

지형의 변화를 ‘진보적’, ‘좌파적’, ‘신좌파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신좌파 정권이 들어선 뒤에도 자원 착취 경제는 실효성을 잃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광물과 석유 수출은 꾸준히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정부는 천연자원을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여긴다. 신좌파 정권은 실천의 주체가 되어 다양한 방식으로 자원 착취 경제를 실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자원 착취 방식이 농업 부문에까지 적용되어 단일 경작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대표적인 경우가 대두 재배다).

표 1 | 총수출에서 1차 상품, 탄화수소(석유와 천연가스), 광물과 파생상품이 차지하는 비율

국가	1차상품/총수출	탄화수소/총수출	광물과 파생상품/총수출
베네수엘라	92.7	89.7	0.4
볼리비아	91.9	46.1	24.8
에콰도르	91.3	59.2	-
칠레	89.6	1.2	60.7
페루	87.4	7.8	55.1
콜롬비아	60.8	24.3	19.4
브라질	51.7	10.0	6.6

자료 | CEPAL 2009

〈표 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자원이 많은 남미 대부분의 나라에서 1차 상품이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히 높다. 룰라가 집권한 브라질은 광물 수출 강국으로 변했다. 2003년에 2억 6,300만 톤이었던 구리 생산은 2008년에는 3억 7,000만 톤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수출액도 60억 달러에서 3배가 넘는 210억 달러로 늘어났다.<sup>8)</sup> 키르츠네르가 정권을 잡은 아르헨티나도 안데스 지역의

8)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수출액은 2004년 200억 달러에서 2007년에는 460억 달러로 증가했다 (CEPAL 2009. Gudynas 2009, 199에서 재인용).

광산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칠레와의 접경 지역인 파스쿠아 라마 지역에서 많은 양의 금을 채굴하고 있다(Gudynas 2009, 191). 신좌파 정권이 들어서면서 달라진 것이 있다면 국가의 역할이다. 전통적 자원 착취 경제에서 축소되었던 국가의 역할이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신좌파 정권의 경제 모델을 ‘신자원 착취 경제’로 부르는 것은 이 때문이다. 신좌파 정부는 외국 기업에 빼돌렸던 여러 가지 특권을 축소하고 로열티와 세율을 높였다. 대표적인 경우가 볼리비아와 베네수엘라다. 볼리비아의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은 2006년 석유 채굴권에 대한 재계약에서 로열티와 세율을 50%로 올림으로써 볼리비아 국영석유회사(YFPB)의 역할을 강화했다. 차베스는 전임 정부에서 취했던 민영화 정책을 폐기하고 국영 석유회사(PDVSA)의 지분율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석유 수출 국가를 중국, 인도, 러시아로 다변화했다(Gudynas 2012, 5; 김기현·권기수 2011, 331~373).

표 2 | 중국에 수출되는 1차 상품과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율

국가	생산품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율(%)
아르헨티나	대두	53
볼리비아	주석	24
브라질	철	45
칠레	구리	55
콜롬비아	석유	54
에콰도르	석유	95
파라과이	가죽	32
페루	구리	39
우루과이	대두	45
베네수엘라	석유	78

자료 | CEPAL 2011. Gudynas 2012에서 재인용

라틴아메리카 신좌파 정권이 자원 착취 경제 노선을 변경하지 못하는 것은 경제 성장을 통해 국가 발전을 지속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자원 조달이 가능하며, 특히 사회복지 정책의 핵심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라틴아메리카가 전 지구적 자본주의 세계 체제에서 투자를 유치하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요소는 자원 착취 경제다. 이런 상황에서 라틴아메리카 신좌파 정권들은 조금씩 ‘착한 자본주의’(capitalismo benévolo)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국가가 이니셔티브를 가짐으로써 자본주의의 구조적 한계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자발적으로 혹은 마지못해 현실 자본주의를 인정하는 것이다.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를 선두로 많은 나라들이 진보적 노선을 내세우는 라틴아메리카에서 역사적으로 이 대륙을 수탈했던 자본주의의 축적 체계를 변화시키려는 시도가 보이지 않는다. [진보 정권이 들어선 뒤에도] 실질적인 변화를 찾아볼 수 없다. 이제 전통적 신자유주의는 아니지만 자원 착취 경제 논리는 지속되고 있다. 수출을 위한 원료 생산이 이 지역의 생산 양식을 과잉 결정하는 상황에서 자원 착취 경제의 원료 수출 지향적 행태는 바뀌지 않았으며, 세계 시장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구조적 변화에 대해 말할 수 없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오래된 자원 착취 경제에서 신자원 착취 경제 혹은 21세기 자원 착취 경제로의 재편일 뿐이다. 국가가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다국적 기업을 규제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재원으로 소득 재분배를 실천한다고 해도 후견인-피후견인 관계를 벗어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사회적 지출이 증가했지만 근본적으로 축적 체계가 변화된 것도 아니고 사회적 양극화가 개선된 것도 아니다. 1차 산품을 생산하고 수출해서 얻은 잉여 이윤을 분배하고 있을 뿐이다(Acosta 2011. Ruíz Marrero 2011에서 재인용).

신자원 착취 경제에 대한 이러한 비판은 라틴아메리카 신좌파 정권이 서구 근대성의 틀 안에서 사회적·경제적 변화를 통해 대안적 근대화를 시도하고 있을 뿐이며, 문화적·정신적 이행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신자원 착취 경제를 '21세기 자원 착취 경제'라고 지칭한 것은 '21세기 사회주의'에 대한 비판적 패러디다. 세계 체제 내의 종속이 여전한 상황에서 '내생적 발전'은 설 자리가 없고, 전 지구적 시장의 경쟁력에 밀려 자율성을 갖는 것도 불가능하다. 달리 말하자면, 자원 착취 경제는 신좌파 정권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라틴아메리카에 할당된 기축 분업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자원 착취 경제가 경제적·사회적·생태적으로 미치는 충격이 더해지면 상황은 더 심각해진다. 대부분의 경우 광산 개발은 국토를 파편화하고 탈영토화한다. 광산의 공간적 특성상 채굴과 수송으로 인해 치외법권적 특혜를 부여받게 되고 농촌 공동체와 원주민의 삶에는 막대한 피해를 가져온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자원 착취 경제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 1킬로그램의 구리를 생산하기 위해서 채굴과 가공 과정에서 평균 349킬로그램의 부산물이 파헤쳐지고 버려진다. 금 1킬로그램은 540킬로그램의 부산물을 통해 얻어진다. 여기에 물과 공기, 에너지가 추가되어야 한다(Gudynas 2012, 6). 지역 차원에서 보면 자원 착취 경제는 소규모 농업이나 목축업을 완전히 해체하고 폐허로 만들 뿐만 아니라 주민들을 유민(流民)으로 만든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배제가 발생하고 갈등이 증폭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결론적으로 신자원 착취 경제는 라틴아메리카 신좌파 정권의 발전 모델이다. 구좌파가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모델로 제시한 사회주의가 국가자본주의였던 것처럼, 차베스가 추구했던 21세기 사회주의도 사회정의를 앞세운 자원 착취 자본주의의 변형이다.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발전 모델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 문화적·정신적 이행은 불가능한 것이다.

## 2) 문화적·정신적 이행과 탈(脫)자원 착취(post-extractivista) 경제

라틴아메리카 신좌파 정권은 사회적·경제적 변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문화적 이행을 위한 첫걸음도 내디뎠다. 그러나 변화와 이행이라는 이중의 어젠다를 실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우파와 제국주의적 자본의 공격은 당연한 것이지만 신좌파 정권도 근대성의 관성에 젖어 발전주의 모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발전 모델은 천연자원(탄화수소, 광물, 대두, 사탕수수, 팜유 등)의 개발로부터 얻어지는 축적에 매달리기 때문에 자연환경에 끊임없이 쓰레기를 남긴다.

지금 인류에게 필요한 것은 대안적 발전이 아니라 발전에 대한 대안이다. 지금 인류에게 필요한 것은 자본주의를 ‘잘’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를 바꾸는 것이다. 이것이 좌파가 담론의 차원과 정치적 차원에서 떠맡아야 할 중대한 역사적 과제다. ‘발전’ 개념은 비판과 반대가 있을 때마다 변신해왔지만 정작 발전 개념 자체는 바뀌지 않았다. 발전은 ‘인간적 발전’, ‘지속 가능한 발전’, ‘양성 평등적 발전’ 등 좀 더 인간적인 세상, 환경 친화적 세상을 내세웠지만 자본주의의 내재적 축적 방식과 분배 방식을 온전히 바꿀 생각은 하지 않는다(Ramírez Gallegos 2012, 32~33)

자원 착취 경제에 토대를 둔 발전 전략을 극복하기 위한 문화적·정신적 이행은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 — 인간적이고 비인간적인 — 를 다시 결합시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자연과 문화를 재결합시키는 것이다.<sup>9)</sup> 자연과 문화를 재결합하

9) “분할 불가능하다(in-dividual)”는 의미에서 개체는 없으며, 모든 개체는 항상-이미 집합체라는 의미에서



는 문화적·정신적 이행을 탈자원 착취 경제로의 이행이라고 부른다면, 탈자원 착취 경제는 어떻게 가능할까? 탈자원 착취 경제는 천연자원의 이용이나 모든 종류의 자원 착취 경제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탈자원 착취 경제는 생산의 고리를 다변화하는 사회적·환경적 전략이다. 탈자원 착취 경제는 ‘약탈적 자원 착취’에서 ‘분별 있는 자원 개발’로, ‘분별 있는 자원 개발’에서 ‘꼭 필요한 자원 이용’으로 이행하는 것을 의미한다(Gudynas 2009; 2010; 2011; 2012).<sup>10)</sup> 즉 생식(生殖)에 초점을 둔 꼭 필요한 소비를 위해 국가적이고 대륙적 차원의 내생적 경제를 의미한다. 약탈적 자원 착취 → 분별 있는 자원 개발 → 꼭 필요한 자원 이용으로의 이행은 단순히 자원 개발의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경제적 전략이고 문화적·정신적 이행이다. 이러한 전략과 이행에는 더 많은 참여민주주의, 경제에 대한 복합적 관점, 다양한 가치 체계, 에너지 절약과 물질적 소비 감축, 세계 경제와의 선택적 비동조화(decoupling) 전략 등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또한 탈자원 착취 경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모든 농업 분야의 생산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유기적-종다양성적-탈집중적 체계를 바탕으로 한 식량 생산은 이행의 과정과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한다(Arturo Escobar 2012, 17). 빈곤 퇴치, 자연의 보존과 권리 인정, 세계화에 저항하는 지역 통합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탈자원 착취 경제는 불가능하다.

‘개체는 중생(衆生, multi-dividual)’이다”(이진경 외 2007, 5).

10) 에두아르도 구디나스(Eduardo Gudynas)는 우루과이에 본부를 둔 독립적 비정부기구인 라틴아메리카 사회생태학센터(CLAE)의 연구원이다.

### 3. 잠정 결론

차베스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은 세계 1위의 석유 매장량, 민중과 호응하는 정치적 카리스마, 반미 발언을 서슴지 않는 민주주의자, '21세기 사회주의'라는 이데올로기 등으로 상징되는 베네수엘라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일 것이다. 극단적인 이분법적 진영 논리를 벗어나 차베스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평가가 필요한 이유는 차베스 등장 이후 라틴아메리카에서 진행되고 있는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다. 또한 '차베스 현상'을 베네수엘라나 남미 대륙에 국한된 사태로 보지 않고 전 지구적 차원에서 바라봄으로써 위기에 처한 현대 문명의 대안을 다 함께 모색해야 하기 때문이다. '차베스 현상'은 라틴아메리카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일부분이다. 베네수엘라를 보고 브라질을 설명할 수 없으며, 브라질을 보고 에콰도르를 이해할 수 없다. 같은 맥락에서 남미를 보고 멕시코와 중미를 해석할 수 없으며, '21세기 사회주의'가 우리에게 대답이 될 수 없다.

이 글에서는 차베스의 공과(功過)를 간략하게 정리하고 과(過)를 통해 라틴아메리카 신좌파의 미래를 모색하려고 시도했다. 이러한 시도를 위해 발전주의 이데올로기를 토대로 진행되고 있는 자원 착취 경제를 분석의 주제로 삼았다. 자원 착취 경제는 사회적·경제적 변화와 문화적·정신적 이행을 접속시키는 주제이며 지역적·대륙적·전 지구적으로 공통된 것(the common)이다. 차베스를 비롯한 라틴아메리카 신좌파 정권은 사회정의의 정책의 제일의제로 삼으면서 발전주의 이데올로기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운동과 담론의 영역에서 발전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탈식민적 기획이 등장했다. 탈자원 착취 경제에 대한 분석은 탈식민적 기획에 구체적인 접근이 될 수 있다. 탈(post)자원 착취 경제의 '탈'은 자원 착취 경제 다음에 오는, 그래서 자원 착취 경제를 전면적으로 전

환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탈’은 선택(option)과 혼합을 뜻한다. 즉 ‘탈’은 다양한 사유와 다양한 실천이 접속되는 공간을 의미한다. 차베스를 비롯한 라틴아메리카 신좌파 정권은 ‘다른 방식’의 경제와 사회, 정치를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다. 차베스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평가도 이러한 비판적 공간에서 출발해야 한다.

## 참고문헌

- 김기현, 권기수. 2011. 『라틴아메리카 경제의 이해: 자원, 불평등, 그리고 개혁』. 한울.
- 볼프강 작스. 2010. 『반자본 발전사전 - 자본주의의 세계화 흐름을 뒤집는 19가지 개념』. 이희재 옮김. 아카이브.
-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편. 2012. 『라틴아메리카의 전환: 변화와 갈등(상)』. 한울.
-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편. 2012. 『라틴아메리카의 전환: 변화와 갈등(하)』. 한울.
- 이성형. 2009. 『대홍수: 라틴아메리카, 신자유주의 20년의 경험』. 그린비.
- 이진경, 고병권, 박정수, 진은영, 정정훈, 최진석. 2007. 『코뮌주의 선언 - 우정과 기쁨의 정치학』. 교양인.
- Acosta, Alberto. 2008. "El Buen Vivir, una oportunidad por construir." *Ecuador Debate* 75: 33-47.
- Cardenal, Ernesto. 2004. "La Venezuela desconocida." *América Latina en Movimiento*.  
<http://alainet.org/active/6224>
- Chavez, Daniel. 2013. "The revolution begins today." *América Latina en Movimiento*.  
<http://alainet.org/active/62256&lang=es>
- Cores, Hugo. 2006. "Venezuela bolivariana y la integración de América Latina." *América Latina en Movimiento*. <http://alainet.org/active/11970&lang=es>
- Escobar, Arturo. 2012. "¿Transformaciones y/o transiciones? Post-extractivismo y pluriverso." *América Latina en Movimiento* 473: 14~17.
- Escobar, Pepe. 2012. "Why Hugo Rules: Washington should get real and understand why Venezuela prefers Chavez." *ALJAZEERA*. <http://www.aljazeera.com/indepth/opinion/2012/10.2012108131627841943.html>
- Ferrari, Sergio. 2013. "Chávez devolvió la dignidad a los excluidos." *Con Nuestra América*.  
<http://www.connuestraamerica.blogspot.kr/2013/03/chavez-devolvio-la-dignidad-los.html>
- Gudynas, Eduardo. 2009. "Diez tesis urgentes sobre el nuevo extractivismo. Contextos y demandas bajo el progresismo sudamericano actual." En AA.VV. *Extractivismo, política y sociedad*. Quito: CAAP(Centro Andino de Acción Popular) y CLAES(Centro Latino Americano de Ecología Social). 187~225.
- Gudynas, Eduardo. 2010. "Si eres tan progresista ¿Por qué destruyes la naturaleza? Neoextractivismo, izquierda y alternativas." *Ecuador Debate* 79: 61~82.
- Gudynas, Eduardo. 2011. "Más allá del nuevo extractivismo: transiciones sostenibles y alternativas al desarrollo." En Fernanda Wandelay, coord. *Desarrollo en cuestión: reflexiones desde América Latina*. La Paz: CIDE/UMSA. 379~410.

- Gudynas, Eduardo. 2012. *Hay alternativas al extractivismo: Transiciones para salir del viejo desarrollo*. Lima: CEPES(Centro Peruano de Estudios Sociales).
- Lander, Edgardo. 2010. “Los retos de otra integración en América Latina.” En Esperanza Martínez y Alberto Acosta, comp. *Soberanía*. Quito: Abya-Yala. 145~165.
- Mayorga, Fernando. 2011. *Dilemas: Ensayos sobre democracia intercultural y Estado Plurinacional*. La Paz: Plural Editores.
- Ramírez Gallegos, René. 2012. “Izquierda y ‘buen capitalismo’: Un aporte crítico desde América Latina.” *Nueva Sociedad* 237: 32~48.
- Ruiz Marrero, Camelo. 2011. “El nuevo progresismo latinoamericano y el extractivismo del siglo XXI.” Programa de las Américas. <http://www.cipamericas.org/es/archives/3913>
- Santos, Boaventura de Sousa. 2013. “Chávez, el legado y los desafíos.” *América Latina en Movimiento*. <http://alainet.org/active/62296&lang=es>
- Steopanoni, Pablo. 2012. “Posneoliberalismo cuesta arriba: Los modelos de Venezuela, Bolivia y Ecuador en debate.” *Nueva Sociedad* 239: 51~64.
- Wallerstein, Immanuel. 2013. “After a Charismatic Leader, What?” *Agence Global*. <http://www.agenceglobal.com/index.php?show=article&Tid=2988>
- Weisbrot, Mark. 2013. “Chávez’s Legacy.” *América Latina en Movimiento*. <http://alainet.org/active/62198&lang=es>